

FA 3년 476억 투자...돈 쓰고도 괴로운 롯데



김영준의 18.44m

'FA 미아' 방지책 등급제가 답일까

#뉴욕의 범주가 줄었다. 그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범죄와의 전쟁' 성과, 빈부격차의 완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가설이 제시됐다. 그 어느 것도 명쾌하게 범주를 감소해 설명하지 못했다. '교차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 교수는 의외의 지점에서 답을 구한다. 낙태 합법화가 불러온 나비효과라는 해석이었다. 1970년대 낙태 합법화 덕분에 '잠재적 범죄자'가 감소해 1990년대 도시 범죄 발생이 줄었다는 얘기다. 선풍 받아들여질 수 없어도, 세상은 '보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답이 있을 수 있다.

#2017년이 저물어 가는데 시장에 아직 프리 에이전트(FA)가 적잖이 남아있다. FA미아 확률이 올라가자 'FA등급제가 있었더라면...'이라는 동정의 시선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원소속 구단에서 "보상선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채태인(전 넥센), 최준석, 이우민(이상 전 롯데) 등은 동지를 못 찾고 있다. 또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등급제에서 최상급을 피할 수 없는 정근우(전 한화) 같은 베테랑 FA도 팔리지 않고 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등급제가 있던 없든, 서로 사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을 못 받는 선수가 있는 것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등급제 같은 제도를 뛰어넘는 '합리성'으로 움직인다. 그 합리성의 핵심은 돈, 즉 구단재정이다.

#베테랑 FA와 베테랑 방출선수 거의 대부분이 새 팀을 찾지 못하고 시장을 배회한다. 이들의 야구실력이 갑자기 감퇴했을 리가 없는데도 선풍 손을 내밀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간단하다. 구단들이 돈이 없어서다. 더 정확히 짚자면 FA 몸값 양극화로 구단들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0억원 안팎의 고액 FA를 구입한 구단은 팀 페이roll에 부담이 발생한다. 자급투입이 특정선수에 편중되다보니, 나머지선수 영입이 간간해질 수밖에 없다. 기존선수들의 일자리도 위협받았다. 한 야구 관계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이번이 방출선수 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몸값이 비싸고, 육성 기조에 맞지 않는 베테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구단에서 3군을 축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수몸값 폭등이 육성마저도 시장을 주고 있는 셈이다. FA 대박은 소수의 잔치다. 구단이 그룹에서 돈을 타오는 것도 한계는 있다. 결국 프로야구는 어쩔 수 없는제로섬 게임이다. 소수에 돈이 쏠리면, 다수는 나눠질 몫이 줄어든다. FA 등급제를 어떤 식으로든 도입해도 S급 FA에 돈이 쏠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변화는 난망하다.

스포츠2부 기자

'짠돌이 구단' 이미지는 벗었지만...

등 떠밀리듯 이뤄진 손아섭·민병헌 FA 계약 린드블럼 노이즈도 롯데의 아쉬운 처지 방증 결국 많은 선수층...미래 준비 부족의 결과물

어찌 보면 롯데 조원우 감독은 복 받았다. 3년 동안 롯데 프런트가 잡아온 프리 에이전트(FA)만 7명(내부 FA 포함)에 달한다. 이 7명의 선수 몸값(보상금 제외)만 총 476억원(발표액 기준)에 달한다.

롯데는 조 감독 취임 직후인 2015년 스토브리그에서 마무리 손승락(4년 60억), 셋업맨 윤길현(4년 38억), 선발투수 송승준(4년 40억) 영입에 총 138억을 썼다. 2016년 스토브리그에서는 이대호 단 한명에게 150억(4년)을 투자했다. 가을야구와 사직 100만 관객을 달성했음에도 투자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2017년 스토브리그에서도 문규현(2+1년 10억), 손아섭(4년 98억원), 민병헌(4년 80억)에게 188억을 배팅했다.

야구계에서는 "롯데 프런트의 판단으로 단행할 수 없는 규모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야구를 잘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한다. 판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스토브리그의 승자' 같은 긍정론만 퍼졌으면 싶은



손승락·윤길현·송승준·이대호(위 왼쪽부터)·문규현·손아섭·민병헌(아래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구조적으로 롯데가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 더 난해하다.

●FA 적정가치 논쟁 그리고 린드블럼 노이즈

롯데는 FA 포수 강민호(삼성행)를 놓쳤고, FA 외야수 손아섭과 민병헌을 잡았다. 세 선수는 동일 에이전트에게 협상을 맡겼다. 강민호

를 놓쳤음에도 롯데는 판을 깰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아쉬워했다. 수도권 모 구단이 기웃거리자 가격은 치솟았다. 오버페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아섭, 민병헌을 잡아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린드블럼이 롯데를 떠나며 보여준 '적개심'도 더 이상 롯데가 감의 위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린드블럼과의 협

상 과정에서 롯데는 결별을 예감하면서도 플랜 B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보안을 유지했다. "린드블럼이 서운해할까봐"가 그 이유였다. 린드블럼이 요구했다고 세간에 알려진 추정연봉에 관해서도 롯데 관계자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롯데는 린드블럼에 관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인선수와는 진실게임에서 이기는 쪽이 아니라, 소모적 '노이즈'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불가항력적이겠지만 3년 동안 476억을 쓰고도 내상을 입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롯데 선수층의 구조적 빈약성이 효율성을 저해해온 탓이다. 롯데는 2008년부터 5년 연속 가을야구를 했다. 이 호황기에 우승에만 목매달았을 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취약했다. 이후 2013년부터 '잃어버린 3년'이 닦혔다. 이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 위해 선수를 바깥에서 사들 수 밖에 없었다. 내부 FA도 빠져지면 바로 구멍이니 '묻지마 잔류'를 시도해야 했다. 가열 찬 투자로 짠돌이 이미지는 불식됐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럴 순 없다. 3년의 투자로 시간은 벌었다. 롯데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1 서드피치 2 제구력 3 체력 김재영의 2018년 성공 키워드

(한화)

베이스볼 피플

"후반기 제구력 좋아지자 성적도 향상 서드피치 슬라이더 완성도 60~70% 12월 회복·웨이트 전념...체력 보강"

한화 김재영(24)은 2016시즌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전체 2번) 지명을 받았다. 당시만해도 2007년 두산 임태훈 이후 끊겼던 순수 신인왕의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사이드암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50km의 빠른 공을 던지는데다 날카로운 포크볼을 지닌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이었다. 그가 2016시즌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자 기대치는 점점 올라갔다.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았다. 대학시절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았던 김재영에게도 프로의 벽은 높았다. 불안한 제구 탓에 볼넷을 남발하며 무너지기 일쑤였다. 결국 입단 첫째 그가 남긴 것은 11경기 승패 없이 방어율 10.32(11.1이닝 13자책점)의 초라한 성적뿐이었다. "첫해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마운드에서 여유가 없었다." 김재영의 회상이다.

2017시즌에도 개막 엔트리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5월 9일야에 처음 1군에 등록됐을 정도다. 그러나 그는 2016시즌과 견줘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볼넷을 남발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사라졌다. 5월 13일 잠실 LG전에서 6.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데뷔 첫 승을 따내며 1년전과 다른 행보를 예고했고, 20경기 5승 7패 방어율 4.54(85.1이닝 43자책점)의 성적으로 2017시즌을 마쳤다. 표본은 작지만, 삼진/볼넷 비율도 2.68(51삼진 19볼넷)으로 2016시즌(0.5·4삼진 8볼넷)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 "긴장되긴 했지만, 꾸준히 마운드에 오르다 보니 그만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기더라."

●노력과 연구, 업그레이드 기대되는 이유

김재영은 노력과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선수다. 빠른 공과 포크볼의 단조로운 피칭메뉴를 보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상대 타자의 유형에 따라 포크볼의 그림을 바꿔 던지고, 간간히 슬라이더도 곁들이며 노립수를 뺏으려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가 2018시즌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로 "제구력과 서드피치"를 꼽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올해 후반기 성적(11경기 3승 4패·방어율 3.90)도 제구력 향상과 궤를 같이한다. 확실치 구속보다는 제구가 중요하다고 느낀다. 또 기존의 빠른 공과 포크볼에 서드피치를 하나 장착하면 긴 이닝을 버티기도 수월할 것 같다. 황으로 뛰는 슬라이더의 완성도는 60~70% 정도인데, 연습경기 때 많이 던져보면서 감을 잡아야 한다."

●다시금 깨달은 체력의 중요성

김재영이 올해 1~2군 통틀어 132.1이닝을 소화하며 느낀 것은 체력의 중요성이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서 웨이트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도 그래서다. 트레이닝파트에서도 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재영은 "트레이닝파트에서 많이 도와 주신다. 시즌 직후 교육리그에 참가해 훈련을 시작한 것도 내가 원해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비시즌 계획도 세웠다. 12월에는 회복훈련과 웨이트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1월부터 공을 만질 것이다. 체력적으로 문제없도록 준비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한화의 미래 김재영은 시속 150km의 빠른 공에 날카로운 포크볼을 갖고 있다. 새 시즌을 앞두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 번째 캠프 슬라이더를 집중적으로 가다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허규연 KBO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7 황슬러 일구상 시상식'에서 일구대상을 수상한 뒤 동문동 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규연, 일구대상 수상...양현종 '올해의 투수'

KIA 양현종이 12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7 황슬러 코리아 일구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투수로 선정됐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MVP를 동시에 석권하고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를 차지한 이어 일구상 시상식에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양현종이 일구회 선정 올해의 투수로 뽑힌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일구대상의 영예는 허규연 KBO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로 돌아갔고, 프런티어 KIA 운영팀, 심판상은 이영재 KBO 심판위원, 특별공로상은 한경진 선수총연합회 재할과 원장, 고교야구 투수 MVP는 광빈, 고교야구 타자 MVP는 강백호, 신인상은 이정후, 외지노력상은 김강률, 지도자상은 김기태 KIA 감독, 최고 타자상은 SK 최정에게 돌아갔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파이널 보스'의 파이널 선택지는?

FA 오승환, ML 구단 러브콜 잇따라 '윈터미팅 때 여러 구단과 만날 예정'

프리 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끝판대장' 오승환(35)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메이저리그(ML) 잔류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여전히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5시즌이 끝나고 일본프로야구(NPB) 한

신에서 프리 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와 1+1년 총액 1100만 달러(약 133억원)에 계약하며 ML에 첫발을 내디뎠다. ML 첫해인 2016시즌 76경기에서 6승 3패 19세이브, 방어율 1.92를 기록하며 빅리그에 정착했고, 이에 만족한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옵션을 실행했다. 올해는 62경기에서 1승 6패 20세이브, 방어율 4.10의 성적을 거뒀다. 방어율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시속 150km대 빠른 공과 슬라이더의 조합은 여전히 위력적이라



오승환

는 평가다. ML에서 보낸 2년간 157삼진·33볼넷을 기록한 마무리 페르난도 로도니(40)의 방어율이 4.23으로 좋지 않았고, 기존의 아치 브래들리, 앤드류 사핀, 호르헤 데라로사의 계투진을 더 보강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이는 7회 이후 강력한 계투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ML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올랜도에 머물고 있는 오승환의 에이전트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는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윈터미팅 기간에 여러 구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산 기자